

### ◇폐에 전이한 유방암의 폐절제수술

홍윤주, 김해균, 이두연, 황정주, 윤용한, 정은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폐에 전이한 유방암의 폐절제수술의 적용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폐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 및 흉강경의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새로운 환자선택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 :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96년 4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유방암의 전이에 의한 폐결절을 보이는 10명의 환자에서 진단 및 치료목적에서의 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병력지의 후향적 조사분석 및 의대통원, 전화연락등의 추적관찰을 통하여 시행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 10명의 평균 연령은 52.7세[35-78세]로 유방암 절제술로부터 폐전이 진단된 시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5년 4개월[11개월 - 20년]이었다. 수술 방법은 폐엽절제술 1례, 소개흉술에 의한 썬기절제술 2례, 폐썬기절제술 및 흉벽등의 주위조직 광범위절제술 2례, 그리고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썬기절제술 혹은 늑막절제술이 각각 4례와 1례이었다. 수술에 의한 사망은 없었고 평균 16.5개월간 추적하여 78%의 전체 생존율과 55.6%의 재발율을 보였고, 병소의 완전절제가 가능했던 4례에서는 100%의 생존율과 25%의 재발율을 보였다.

**결론** : 유방암의 전이에 의한 폐결절의 절제후 생존율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방사선학적으로 추적된 모든 병소의 완전 절제, 폐 주위조직으로의 침범이 없는 경우 및 임파선의 전이가 없는 경우로 나타났고, disease-free interval, 폐결절의 수, 크기, 양측성의 여부, 절제술의 방법, 유방암의 병기, 수술방법, 조직형, 술후 보조요법의 여부및 종류, 진단만을 위한 병소 일부의 조직검사나 감축술로서의 폐절제등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이성 폐암수술에 있어서의 흉강경의 이용은 지금까지 진단 목적으로 국한되어 왔으나, CT-guided needle localization등의 방법을 접목시켜 폐결절의 위치 확인율을 높이므로써, 최소한의 수술이환율로 좋은 국소 치유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므로 치료 영역에 확대 적용될수 있다.

책임저자: 김해균(연세대학교) 발표자: 홍윤주(연세대학교)